

유럽공동체의 외국어 교육 정책

—프랑스, 독일, 영국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지역 연구의 테두리 내에서, 유럽공동체의 여러 현안 중 특히 그 구성 국가들 간의 문화적 “조화”가 어떻게 모색되고 있는지를 유럽공동체의 외국어 교육 정책, 특히 외국어 교육 정책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이 목적이이다.

1950년 5월 9일 Robert Schuman이 오랫동안 계획되어 온 유럽 국가들 간의 대립과 경쟁에 종지부를 찍고 상충되는 이해관계를 극복하려는 목적 아래 일차적으로 극히 제한된 경제 분야에서 실질적인 연대감의 형성을 제안하면서부터 시작된 유럽공동체의 구상은 특히 경제 생활의 전반적인 영역으로 꾸준히 그 구체적인 작업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유럽공동체가 원래 하나였던 것이 다시 합쳐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만큼, 공동체의 형성은 각 회원국들 간의 이질성을 어떻게 다양성의 조화라는 차원으로 끌어 올리느냐 하는 문제를 여전히 안고 있다 하겠다. 그럴 때 주로 각 회원국들 간의 물질적 차이를 “제거, 극복”하여 공동체를 형성하려는 경제 정책 못지 않게, 회원국들 간에 존재하는 문화적인 차이를 “인정”하면서 휴머니즘, 다양성, 보편성을 지향하는 공동체의 새로운 정신을 모색하는 작업이 중요한 것으로 대두된다. 이러한 공동체 시민 정신을 함양시키는 것이 바로 공동체 교육 정책의 목적인 바, 유럽공동체 이사회는 이를 “배타주의와의 싸움,” “다문화 사회에서 공존할 수 있는 미래 공동체 시민의 양성,” “문화 교류적 교류” 등으로 일컬으며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서유럽만 해도 10여개 언어를 사용하는 23개의 국가로 나뉘어져 있으며⁽¹⁾, 이들의 외국어 교육 정책은 유럽공동체가 서로 다른 언어들에 대해 어떻게 그 차이를 인정하면서 유럽의 통합을 꾀하는가에 아주 잘 나타나 있다. 서로 다른 문화권에 속한 사람들이 정보와 생각을 교환하고 사고와 감정을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동체 형성의 전제 조건인 까닭에 외국어 정책은 유럽공동체 교육 정책의 핵심이라 아니할 수 없다.

사실 이러한 다양성을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유럽 정신의 확립이라는 목표를 굳이 강조하지 않더라도 경제, 과학,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커뮤니케이션과 협력의 도구가 되는 공

* 본 연구는 1991년도 서울대학교 발전기금의 지원을 받은 연구임.

(1) 유럽공동체의 주요 언어와 사용자에 대한 통계를 살펴보자. (단위 : 백만)

덴마크어 : 5	네덜란드어 : 20	영어 : 60	프랑스어 : 58
독일어 : 78	그리스어 : 11	이태리어 : 60	풀루칼어 : 10

Georg-Michael Luyken, 1991 Overcoming Language Barriers in Television(Manchester European Institute for the Media), p. 4. 박병진 외, “통합유럽을 위한 프로그램 산업 : 언어와 문화적 차이의 극복 전략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부설 지역종합연구소 제 1 회 지역연구 학술 발표회자료) p. 73을 참조.

동체 내 외국어의 상호 습득이라는 과제는 필수불가결한 것으로서 “유럽공동체의 성패” 혹은 “공동체 정책의 아킬레스 건”이라고 표현될 정도이다.

사실 회원국들의 교육 제도는 위낙 다양하고 역사 및 문화의 유산인 이러한 다양성은 보존되어야하기 때문에 다양성을 보존하면서 서로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려는 움직임은 흥미로운 일이다. 회원국들의 교육정책 입안자들은 서로의 특성과 정책을 비교하고 동시에 협력을 강화해가면서 각국의 외국어 교육의 혁신과 개선을 모색하고 있다. 이 결과 1976년 유럽의회와 교육부 장관들은 교육정책의 공동보조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EURYDICE’라는 정보 교환 체계를 설립했다. 그후 회원국 대표들은 1982년 3월 29일 ‘유럽기금’(European Foundation)의 설립에 합의하였고 1983년 6월 19일에는 유럽 의회가 유럽의 협력을 격려하기 위해 언어 학습의 조장을 재확인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은 외국어 교육의 중요성을 유럽 국가들이 얼마나 잘 인식하고 있나를 보여준다.

이러한 언어교육정책의 공동보조 속에서 우리가 유럽공동체 — 특히 프랑스, 독일, 영국—의 외국어 교육 목표 및 실태를 살펴보는 작업은 그것이 경제 통합 측면의 연구와 균형을 이를 때 유럽공동체에 대한 우리의 올바른 이해를 가능케해주어 우리와 유럽 간의 새로운 관계 설정에 도움을 주게 될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연구는 우리의 입장에서 유럽공동체에 대응하고자 할 때 부딪치는, 언어장벽 같은 난관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실제적인 도움과 함께 이들 국가가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그들의 외국어 교육을 실제로 어떻게 수행하고 교사교육, 평가 등은 어떻게 실행하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가 당면한 국어 교육과 외국어 교육의 방향 제시 및 문제 해결에도 적지 않은 도움을 주리라 기대된다.

영국의 외국어 교육

변 창 구

(영어영문학과 부교수)

I. 머릿말

유럽 통합계획이 있기 오래전부터 영국은 외국어 습득이 학생들의 교양교육에 크게 기여하며, 학생의 성장과 발달이 타 교과 및 외국어 습득과 비례하여 성장한다는 관점에서 외국어 교육을 장려해왔다. 즉 학생의 교육경험에 기여한다는 점과, 다른 문화권과 사회를 깊이있게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외국인의 관점에서 자기나라의 언어와 사회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생각이었다. 학교교육의 목표가 젊은이를 명쾌하게 사고하고 사회에 적응 잘하는 인품의 소유자로 양성하는 것이라면 외국어교육은 이 목표를 달성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학생의 개인적 지평선을 확장시키고 경험에 새로운 차원을 추가시키며, 외부세계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시킨다는 관점이었다. 외국어 학습은 정신훈련으로서의 가치뿐만 아니라 타인의 내면세계를 이해하는 도구 및 기회가 되며, 자신의 의사표명의 도구가 되기도 한다고 보았으며, 학생을 자율적이고 자유스런 개인으로 만드는 게 학교의 목표라면 —즉, 민주주의적 선택을 우선으로 하는 사회의 모든 결정의 논리적 귀결이 학교의 목표라면— 외국어 교육은 인간을 환경의 노예에서 해방시키고 폭넓고 얕매이지 않는 자유스러운 사고를 용이하게 해준다는 취지이었다.

…외국어 학습은 임무분석, 사실관찰 및 분별기술, 개념화와 일반화의 연역파악, 분류 및 정돈과정, 가설과 실제를 사용한 테스트 등의 면에서 집중적 훈련을 요구한다¹⁾

영국정부는 이러한 관점과 영어가 비록 명실공히 세계공용어라는 사실을 당연시하면서도 유럽통합 등의大事에 직면하면서 외국어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하였던 것 같다：“고도로 훈련된 외국어 교사진의 유지와 개발이 필수적이며, 세계에서의 영국의 변화된 위상은, 영어의 국제적인 확산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외국어 학습을 더욱 필요케 했다.”²⁾ 외국과의 교류와 사회, 경제, 정치적 진출을 위해서는 외국문화와 제도의 이해 및 그 해당국 언어의 습득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영국의 경우 외국어 습득이, 이를 교육과정의 필수로 여기는

1) C V James, “Foreign Languages in the School Curriculum,” in *Foreign Language in Education. NCLE Papers and Reports 1*, P.E Perren(London Centre for Information on Language Teaching and Research, 1979), p 9.에 시재인용.

2) 위책, G.E. Perren, “Introduction,” p. 3.

다른 유럽국들과는 달리, 당연시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비영어권에서도 영어가 가장 세력 있는 국제어로 통용되고 있지만, 영어에만 완전히 의존하는 것은 사업과 다른 영역에서의 기회를 좁히는 결과를 초래한다. 1979년 ‘외국어 및 국제연구에 관한 미국 대통령 위원회’의 다음 보고사항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사업, 외교, 과학에서의 국제어로 영어를 사용하는 것은 국경을 초월한 이해의 도구로 활용할 만한 일이지만, 영어지식을 당연시할 수 없는 수많은 경우와 지역에서 영어가 직접 의사소통의 대체물로 상정될 수 없다. 사실은 지구인구의 대부분이 영어를 이해하지도 말하지도 못한다는 사실이다. 영어를 외국어로 배우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도 이는 사실이다.³⁾

이렇게 영국이 외국어 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한 점 등이 그 교육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하였으나 아직은 바람직 할 만한 정도는 못된다.

II. 외국어 교육 목표

영국은 5세부터 16세까지 의무교육연한을 두고 있으며 England와 Wales의 경우 국민학교(5세 부터 11세까지), 중등학교(11세 이상), 중학교(9~14세까지) 교육을 “종합교육”이라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며, 중학교때부터 외국어교육을 규정으로 정하여 실시하고 있다. *Modern Foreign Languages in the National Curriculum(1990)*⁴⁾에 의하면 외국어교육의 목표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 실제 의사소통의 목적에 해당 외국어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
- ** 차원 높은 연구, 작업, 여가에 필요한 수단, 언어, 태도의 전진한 기초를 형성하기 위해
- ** 외국어가 말해지는 나라의 문화와 문명에 대해 식견을 제공하기 위해
- ** 언어 및 언어학습의 성격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 ** 즐거움과 지적 자극을 위해
- ** 외국어 학습과 외국어 사용자에 대한 긍정적 태도와 타 문화 및 문명에 대한 동정적 태도를 증진시키기 위해

3) “Strength through Wisdom: A Critique of US Capability.” ‘외국어 및 국제연구에 관한 미국 대통령 위원회’가 대통령에게 한 보고서. US Department of Health, Education and Welfare/Office of Education, November 1979. *Foreign Languages in the School Curriculum: A Draft Statement of Policy by the Secretaries of State for Education and Science and for Wales* (London Dept. of Education & Science, 1986), p. 2에서 재인용.

4) *Modern Foreign Languages for Ages 11 to 16: Proposals of the Secretary of State for Education and Science and the Secretary of State for Wales*(Dept. of Education and Science and the Welsh Office, October 1990)

** 학습의 보다 보편적 적용기술(예: 분석, 기억, 유추)을 증진시키기 위해

** 학생들이 자신과 그들의 문화에 대한 인식을 발전시키기 위해⁵⁾

교과과정에서 외국어가 차지하는 기여도는 무엇보다도 언어적인 면과 문학적인 면, 그리고 인간적인 면과 사회적인 면을 들 수 있는데, 외국어 학습의 기본목표는 명백히 두 가지이다. 즉, 의사소통을 위해서 외국어를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며 이 목표가 달성되는 정도는 주로 학습자의 협력, 적용, 그리고 그의 능력과 교사의 자질 및 학습기간 등에 달려있다. 외국어 교육이 학생의 교육에 기여하는 바를 그들은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언어 및 문학적인 면

** 학습자가 그 외국어를 계속 공부할 마음이 생기도록 하거나 새로운 외국어를 시작하도록 유도하는 유쾌하고 성공적인 학습경험을 제공한다.

** 그 언어를 모국어로 하는 사람들과 적절한 수준에서 의사소통할 수 있는 자신감을 학습자에게 제공한다.

** 효과적인 청취 및 독해기술을 발전시킨다.

** 언어와 언어의 형태, 음, 리듬에 대한 민감성을 양성한다. 단어사용의 즐거움을 향상시키고, 영어의 표현력을 인식시킨다.

** 분석, 분류, 종합, 유추, 추론의 기술을 발전, 강화시킨다.

** 차후의 외국어 학습의 만족할 만한 언어적 기본을 제공한다.

2. 인간적인 면과 사회적인 면

** 사회 관습과 행동의 차이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켜 사회적 적응 능력을 향상시킨다.

** 해당국과 해당국민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양성하고 편견을 바로잡는다.

** 자신감과 여유를 가지고 외국손님을 만나거나 해외여행을 할 수 있게 해준다.

** 외국문화와 생활양식에 대한 관심을 일으키고 자국문화를 보다 넓은 관점에서 볼 수 있게 해준다.

** 생소한 것을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계발시킨다.

** 관용과 공동으로 일하는 자세를 조장한다.⁶⁾

이러한 외국어의 다방면에 걸친 기여에 주목하면서 영국정부는 특히 언어적 목표 달성의 필요성을 느끼고 이에 주의를 기울이는데, 이에 대해 중점적으로 알아보면.

5) 위책, p. 3.

6) *Modern Foreign Languages to 16: Curriculum Matters 8*(London: HMSO, 1987), pp. 4-5.

III. 언어적 목표

외국어 학습의 언어적 목표는, 비록 보통 때는 서로 겹쳐져 나타나지만,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로 구분해 말할 수 있다. 적어도 16세까지의 학생들에게서 가장 실제적인 기술은 듣기와 말하기이다. 대부분의 경우 이에 이어서 읽기가 뒤따르는데, 읽기는, 외국어 학습 과정을 엄청나게 지원하고 독자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외에도, 실제 정보 탐색에 그 언어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며 그 언어로 쓰여진 문서를 읽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쓰기의 가치에 대한 논쟁에는 항상 쓰기가 목적을 위한 수단이냐 아니면 목적 그 자체냐 하는 문제가 따른다. 그래서 대부분의 외국어 학습자들은 쓰기를 배우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반면, 쓰기는 학습과정의 기억을 돋는 정도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으나 쓰기를 잘 할 수 있게 되면 영어를 모르는 사람들과 의사소통의 추가수단이 됨과 동시에 상당한 만족을 준다는 점에 주목하고 이를 교육과정에서 강조한다.

영국의 경우에도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의 경우처럼 네 가지 목표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1) 듣 기 : 다양한 종류의 구어를 이해하고 꼭 말로 써가 아니라도 (몸짓이나 표정으로) 적절히 응대할 수 있는 능력
- (2) 말하기 : 말과 대화에서 상대와 목적에 적절하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
- (3) 읽 기 : 다양한 종류의 文語를 읽고, 이해하고, 응대할 수 있는 능력
- (4) 쓰 기 : 문어로 독자와 목적에 알맞는 내용과 스타일로 의미를 형성, 기록, 전달할 수 있는 능력⁷⁾

학습자의 능력범위 안에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나 학생들이 외국어를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감안하여 상당히 높은 기대수준을 설정하고 그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능력이 부족한 학생이라고 외국어를 배울 필요가 없다고 추정하면 안 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그러한 가설은 능력부족 학생들의 외국어 학습기회를 영원히 빼앗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이를 경계하고 있다.

1. 16세 학습자를 위한 언어적 목표

영국의 의무교육과정인 중학교가 16세로 사실상 끝이 나므로 그 때의 언어적 목표를 학습과정과 결과의 양면에서 형성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규정하면서도 결과의 관점에서만 목표를 설정하면 협소하고 보람없는 학습과정으로 화할 염려가 있음에 주목하고 과정도 중시할 것을 강조한다. 다음은 16세 학생들의 적절한 목표인데 (1)

7) *Modern Foreign Languages for Ages 11 to 16*, pp. 10-11.

은 학습자가 경험할 언어적 경험의 종류이며, (2)는 그들이 배운 언어로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1) 듣기

(ㄱ) 놀음, 비디오 및 교사와 모국어 사용자⁸⁾들을 통해 해당외국어를 광범위하게 경험하고, 그 언어의 용례를 자주 듣게 한다. 여기에는 질문, 발표문, 뉴스, 인터뷰, 대화, 사전 기록 등의 다양한 경우를 포함하게 된다.

(ㄴ) 여러가지 소재에서 그 요점과 세세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시킨다. 일상사건을 소재로 모국어 사용자와 대화를 이끌 수 있고, 덜 세련되었지만 그 나라에서 나름대로 그 언어를 다룰 수 있고 단순한 일상생활에 대응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 생기도록 한다.

(2) 말하기

(ㄱ) 온갖 정보를 제대로 찾고 활용할 수 있고, 주어진 상황에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해야한다. 교사 또는 모국어 사용자와 공식적인 상황이나 사교적인 장면에서 대화하는 경험을 쌓게 한다.

(ㄴ) 일상의 요구에 대응하고, 외국을 여행하고, 정보를 문의하는 능력 ; 일상대화에 참여하는 능력 ; 발음, 높낮이, 강세 및 과거, 현재, 미래 시제를 적절히 구사할 수 있도록 한다.

(3) 읽기

(ㄱ) 짧은 정보위주 및 교과서와 10대와 어른들의 관심사를 반영하는 서술문을 읽게 한다.

(ㄴ) 거리표시, 메뉴, 일정표, 광고물, 여행정보, 광고문, 안내서들을 이해하고, 신문이나 잡지의 중요한 메세지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킨다.

(4) 쓰기

(ㄱ) 간단한 편지, 메세지, 질문들에 응답할 수 있게 한다.

(ㄴ) 소정 양식을 채우거나, 간단한 편지 쓰기, 전화내용 전달 등의 능력을 기른다. 비록 시제, 단어, 문법, 문맥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내용이 모국어 사용자에게 이해될 수 있어야 한다.⁹⁾

결과와 함께 과정도 중시하면서 우수학생에 대한 목표의 상향조정의 가능성도 제시하고 있다. 보다 우수한 학생은 라디오, TV프로그램, 뉴스, 인터뷰 등의 세련된 듣기 경험을 쌓아야 한다. 배경잡음 등이 섞인 실상황에서의 자연스런 대화를 이해하고 전달된 태도, 감정, 사상들을 알아낼 수 있어야 한다. 내포된 사상에서 결론을 유추하고, 여러가지 스타일(라디오, TV, 현실적 상황, 외국의 같은 나이또래 등)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유머

8) ‘native speaker’의 개념은 매우 광범위하다. 인격, 개인 성장사, 사회 및 경제적 배경, 교육 등의 요소를 고려해서 모국어 사용자의 범위를 정해야 한다

9) *Modern Foreign Languages to 16*, pp. 6-6.

감각을 기르고, 자신의 관심사에 대해 제법 유창히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자신의 사상, 의견, 감정들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종속절의 사용과, 시제의 정확한 사용이 이루어져야하고, 문법적 오류의 축소, 발음, 억양, 강세의 정확성 도모 및 신문 잡지 기사에 함축된 특정 의견이나 안목을 포착하고 요점, 주제, 결론을 유추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생소한 단어의 뜻을 유추할 수 있어야하고, 특정 토픽이 주어지면 그에 대해 사전을 진술하거나 묘사할 수 있어야 하며, 어떤 논쟁에 대해 찬, 반 또는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등이다.

2. 14세 학습자

학습에서 적절한 목표의 설정과 그의 달성이 중요한데 14세 학습자의 목표를 영국의 교과과정이 이렇게 명시하는 것은 14세 학생의 경우 외국어 학습을 가장 많이 포기하는 시기이기 때문인데 이를 살펴보자. 3년이상 걸리는 외국어 학습은 교육경험으로써, 언어학습을 위한 기초로써 나름대로의 가치를 지니고 있어야 하는데, 14세의 경우 언어학적 목표는 16세의 경우와 거의 같다. 예를 들어 다음 토픽들에 대한 나름대로의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 개인적 정보교환

** 가족과 집

** 여가선용과 취미

** 날씨

** 학교

** 고장소개

** 간단한 쇼핑

** 음식과 음료

** 일상생활

** 질병과 건강

** 해당외국

** 여행과 공휴일

** 해당국민과 같이 지내기¹⁰⁾

이러한 토픽에 대해서 (1) 듣기의 경우에는 질문, 발표, 뉴스, 일기예보, 대화 등의 요점과 특정 내용을 이해 할 수 있어야 하며 : (2) 말하기의 경우 정확한 발음, 억양, 강세를 유지하면서, 간단한 시제를 제대로 구사하며 위의 토픽들에 대해 문답과 대화에 참가할 수 있어야 한다. 다음 단계로는 거리표시, 메뉴, 시간표, 광고, 편지를 읽을 수 있어야 하고,

10) 위책, pp. 9-10.

서술문, 묘사문을 이해, 소화할 수 있어야 한다. 과거, 미래시제들을 간단히 활용하여 편지를 쓸 수 있어야 하고, 그 글이 모국어 사용자들에게 이해될 수 있어야 한다.

IV. 가르침과 배움의 일반원리

영 국정부의 교과과정은 교육의 일반론을 다음과 같은 영역으로 구분하여 명시하고 있다. 교수계획안, 교실내에서의 외국어 사용, 학생의 능력에 따른 구별, 기타 학습도중 학생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여러 방법들, 문법 및 번역 문제 등.¹¹⁾ 학교라는 제한된 공간과 시간속에서 성공적으로 외국어의 가르침과 배움이 행해지려면 전체적인 전략이 필요하게 된다. 교사는 확실한 목표와 방법, 학생들에 대한 적절한 기대감을 가져야 하므로, 이를 위해 교수계획안을 항상 작성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단계별 능력별 목표와 방법을 정하고 이의 평가계획도 세우고, 또한 실습계획과 참여방안도 고려하기를 권장한다.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외국어의 읽기, 쓰기를 학생들에게 장려하고 학습과정에 효율적으로 외국어를 사용하여 외국어가 자연스런 매체가 되도록 해야한다. 또한 그 외국어는 수업내용전달과 대화 등을 위해 끊임없이 사용되어야 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학생들은 그 외국어를 평소에도 사용할 수 있게 할 수 있다.

학습과정에 학생들이 능력상의 차이를 보이는 것은 당연하고, 교사는 이를 수업에 반영할 준비가 되어있어야 한다. 각각의 학생들이 나름대로 높은 수준의 기대감을 가지고 모두 성공적으로 배웠다는 성취감을 갖게 해주어야 한다. 따라서 학생개개인의 능력에 알맞는 과제를 마련하여 나름대로의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교사는 학생들을 개인적으로 관찰하고 학생의 성적 등을 통해서 학생 개개인의 능력차이를 충분히 알고 있어야 한다. 또한 학습을 재미있게 진행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교사는 자주 학생을 격려하는 것이 최선이므로, 비록 문법이나 발음 등에서 오류를 보일 지라도 이를 너무 가혹하게 하지 말고, 언어구사력이 목표일 때는 빈번한 방해나 중단은 학습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이를 지양할 것을 권고한다.

학생들이 수동적으로 정보를 받아들이기만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게 훨씬 효율적 이므로, 교사는 학생들이 그 외국어를 자주 활용,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나 상황을 마련해야 한다. 교과진행에서 다양성의 확보가 학생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데 필수적이며 질문을 하고 호기심을 유발시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¹²⁾ 또한 학생들이 口語(spoken language)를 제대로 구사하고 학습에 관심을 집중시키기 위해서는 적당한 수준에서 구어를

11) *Modern Foreign Languages for Ages 11-16*, pp. 34-53.

12) Medani Csman Ahmed, "Vocabulary Learning Strategies," in *British Studies in Applied Linguistics 4: "Beyond Words,"* ed. Paul Meara(papers from the Annual Meeting of British Association for Applied Linguistics, Univ. of Exeter, Sept. 1988), p. 9.

이용해야한다. 주제는 그 나이 또래 학생들의 관심사를 반영하고, 듣기와 읽기 자료들은 단순히 언어학적 측면만을 고려해서는 안되며, 오히려 그 나라에 대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도록 배려되어야 한다. 이렇게 해야만 외국어 학습은 학생들에게 풍부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

교실에서의 학습을 가능한한 실제 상황과 유사도록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셈하기, 철자법, 출결상황, 사과하기, 사람소개, 응답하기, 설명 요구하기 등의 기회를 만드는 것이다. 외국어 교육의 언어학적·사회학적 목적들은 학습현장과 그 외국어가 사용되는 나라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학생들의 외국어 학습의 목표는 단순히 학교에서의 외국어 사용, 자격취득 등의 목적만을 위해 배우는 것이 아니라 더욱 중요한 것은 다른 나라와의 접촉을 통해 무엇인가를 배우려는 것임을 주지시킨다. 그 나라의 생활방식, 문화, 역사 등의 배경정보는 신중히 선택하고, 외국의 학교와 자매결연 등의 관계— 이를 통한 서신왕래, 테이프 등을 통한 메세지 전달, 단체 외국방문 및 체류 등—를 맺는 것도 한 방법이다. 흥미, 여유, 다양성, 모국어에 가까운 언어구사력들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교사는 적절한 학습자료들—시청각 자료와 신문, 포스터, 광고물, 안내책자, 지도들—을 학생들에게 접근시켜 주어야 한다. 또한 교실에 시청각설비를 갖출 것도 권장한다.

학생들이 실제 상황에서 문장구조를 접하고 사용한다면 그 구조를 보다 쉽게 숙달할 수 있다. 따라서 문장구조, 동사형, 어미변화 등을 단순한 기억작용을 통해 학습하지 않고 의사소통이 가능한 환경 속에서 학습되도록 하여 학생의 능력과 동기를 향상시키고 그 성과도 증진시킬 것을 고무한다. 학생들에게 가장 필수적인 것은 그들이 배운 것을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므로, 학습도중 영어의 사용을 금하여 그 외국어로 된 선별된 예들이 어떻게 문장구조가 형성되고 사용되어지는 가를 예를 들어 보여줄 필요가 있다.

처음부터 학생은 자신들의 모국어에 의존하지 않고, 배우고자하는 외국어로 말함으로써 그 언어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경주케 하고 번역에 의한 학습의 단점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언어학습으로써 번역의 주된 단점은 번역이 언어학습에 반작용을 하고 학생들에게 문맥과 무관하게 단어 하나하나에 대한 동의어적 관점에서 언어를 학습케 한다는 것이다. 번역은 빠른 이해와 유창한 표현을 방해하므로 번역을 통한 학습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언어학습에서의 진보는 어휘력 증가, 복잡한 문장구조의 습득, 그 언어 사용의 자신감 등으로 나타난다. 만약 학생들이 자신들이 배운 문장구조나 어휘, 관용구들을 다른 문맥에서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엉무새처럼 단순히 모방하는데 그친다면 그 학습에는 전혀 진전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V. 가르침과 학습의 활동

언어의 네 가지 기술—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을 분리해서 고려해보는 것이 유용하다. 그러나 구두활동을 모든 단계의 중심으로 강조하고, 학생들의 나이나 능력도 고려할 것을 말한다. 구두학습의 성공적인 결실을 위해서는 학생 개개인의 혼신적인 노력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서는 학생들이 주어진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고 최대한으로 참여해야 하므로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도 강구하라고 촉구한다. 흥미있는 소재를 이용해 네 가지 기술들이 서로 연결되어 학생들을 자극시키고, 언어를 통한 실험—폭넓은 학습의 근원이 되고 그 언어의 숙달에 기여할 수 있는—을 장려한다. 이를 *Modern Foreign Languages for Ages 11 to 16*에서는 각 기술별로 10단계로 나누어 5년의 학습기간에 걸쳐 그 도달목표를 단계별로 그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이를 간단히 요약해보면.¹³⁾

1. 듣 기

외국어 학습의 최우선 과제는 쓰여진 말의 이해에 있다. 단어나 짧은 문장에서 연속된 문장들의 자세한 내용이나 메세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하다. 말(speech)은 분명하고 또렷해야 하며 처음부터 자료의 도움없이 듣도록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대화가 가장 중시되어야 하며 교사는 이를 규칙적으로 사용해서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생들은 듣기 기술의 훈련을 통해 정보의 특정한 부분을 판별해내고 분위기를 파악하고, 기타 여러 사항들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제 1 단계 : (ㄱ) Stand up. Sit down. Shut the door. Repeat. Did you understand? 등에 반응하기.

- (ㄴ) 식당에서 마실 수 있는 음료나 동물원에서 볼 수 있는 동물.
- (ㄷ) What's your name?의 이해.

제 2 단계 : (ㄱ) Write that..., Press this key. 등의 짧은 지시들의 이해와 응대.

- (ㄴ) 대화의 소재 이해.
- (ㄷ) 대화 상대의 정체 파악.

제 3 단계 : (ㄱ) 교사의 지기에 따라 간단한 임무수행.

- (ㄴ) What is your name?에 정확한 대응.

제 4 단계 : (ㄱ) 짧은 비디오를 보고 그 내용을 이해하고 토론.

- (ㄴ) 라디오나 TV의 일기예보 이해.

13) *Modern Foreign Languages for Ages 11 to 16*, pp. 14-33. 아래의 1)에서 4)까지의 세 목들은 이 부분을 요약한 것임.

제 5 단계 : (ㄱ) 길 안내문의 이해.

(ㄴ) 전화 메시지의 이해.

제 6 단계 : (ㄱ) 초보강의 테이프의 내용이해.

(ㄴ) 공공성명의 이해.

제 7 단계 : (ㄱ) TV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보고 그 내용에 대한 길문에 응답.

(ㄴ) 대화중의 모르는 단어유추.

제 8 단계 : (ㄱ) 미완성 리포트를 듣고 결론 유추.

(ㄴ) 전화사용.

제 9 단계 : (ㄱ) 토론의 찬반 내용파악.

(ㄴ) 일상을 주제로한 토론의 주제 및 그 내용 파악.

제 10 단계 : (ㄱ) 신문기사를 놓고 동료와 토론.

(ㄴ) 리포트, 광고, 서술문간의 언어의 차이 인식.

2. 말하기

반복, 질의와 응답, 대화게임, 역할놀이, 전화하기, 암기와 낭송들을 통한 말하기 연습의 기회는 모든 학생들에게 의미있는 경험이 된다는 점을 명심하고, 질의 응답의 경우 학생들 나름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답이 열려 있는 질문들(open questions)을 접할 기회를 제공해서 학생들이 특정 토픽에 대해 간단한 이야기를 전개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 밀하기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너무 문법상의 완벽함이나 완전한 문장의 사용을 강요하거나 고집 할 필요는 없다. 무엇보다도 학생들이 말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제 1 단계 : (ㄱ) Yes/No의 반응. 사물묘사 판별.

(ㄴ) I don't understand., What does that mean? 등의 보조질문 가능.

제 2 단계 : (ㄱ) Hello.... My names is... I've forgotten. I live in London. 등의 짧은 반응 가능

(ㄴ) It's great. I don't know, How are you? 등의 대화 가능.

제 3 단계 : (ㄱ) My name is.... What's yours? Let's start. I've forgotten my pen. Pass me the paper. What does it mean?의 질문 가능.

제 4 단계 : (ㄱ) Excuse me, do you have some apples? Let's talk about weekends. 정도 구사.

(ㄴ) Why?라는 질문에 I was a dentist. 등의 해명 가능.

제 5 단계 : (ㄱ) 친구나 삼촌의 묘사.

(ㄴ) 단순한 서술 ; Last summer I went to Scotland with my family. 가능.

제 6 단계 : (ㄱ) 단순한 질문 : What are you doing Saturday? What shall we do?

(ㄴ) 의미등 상세한 설명 요구 : What do you mean by...?

제 7 단계 : (ㄱ) 간단한 언어로 사건 소술 및 감정 묘사.

(ㄴ) 예측 불가능한 내용에 대응 가능.

제 8 단계 : (ㄱ) 당해 외국어 사용자의 방문에 영접 및 안내, 설명.

(ㄴ) 단체 작업에서 지시사항에 대한 토론.

제 9 단계 : (ㄱ) 제시된 의견을 지지하는 이유 나열하기.

(ㄴ) 협상 등에서 차선책의 가능성 토론.

제 10 단계 : (ㄱ) 자신의 견해와 그 이유 주장하기.

(ㄴ) 짧은 이야기의 개요 말하기 및 그 내용에 대한 질문에 대답.

3. 읽기

말하기는 말하는 이의 속도에 따라 이루어지는 상대적 행위이지만, 읽기는 독자 자신의 속도에만 좌우되는 개인적인 행위, 즉 독서는 자발적으로 어휘를 습득하고, 언어의 스타일, 그 나라에 대한 배경지식을 얻는 주요 수단이다. 따라서 정독과 다독의 병행을 유도함이 바람직하나, 점차 광범위한 독서를 장려해야한다. 이를 위해서 일관성 있는 독서계획을 수립하도록 장려하고, 독서자료를 다방면에서 고르도록 유도한다. 소설, 참고서, 10대용 잡지, 여행정보, 기술책자, 신문, 만화 등이 그 예이다. 물론 학생개개인의 능력에 따른 알맞는 독서자료의 선정과 계획이 필요하며 학생들로 하여금 도서관을 자주 이용케 함이 바람직하다.

제 1 단계 : (ㄱ) 텍스트속의 단어이해.

제 2 단계 : (ㄱ) 쉬운 언어로 쓰여진 짧은 귀절 이해.

제 3 단계 : (ㄱ) 낮익은 주제의 짧은 텍스트 이해 및 이에 대한 유추.

제 4 단계 : (ㄱ) 신문, 잡지 기사 이해.

(ㄴ) 글의 요점파악.

제 5 단계 : (ㄱ) 복합문이 있는 텍스트 이해.

(ㄴ) 적절한 참고서적사용.

제 6 단계 : (ㄱ) 견해가 실린 신문, 잡지기사 이해.

(ㄴ) 흥미 있는 잡지기사 파악.

제 7 단계 : (ㄱ) 장문의 기사 이해.

(ㄴ) 다양한 구조의 언어이해 및 의미예상.

제 8 단계 : (ㄱ) 낮선 주제문 이해.

(ㄴ) 동일주제에 대한 다른 의견의 비교.

제 9 단계 : (ㄱ) 다양한, 특히 상상력이 가미된 허구의 글 이해.

(ㄴ) 논쟁의 요지 파악 및 요약.

제 10 단계 : (ㄱ) 각종 글의 이해 및 코멘트.

(ㄴ) 이에 대한 참고문헌의 적절한 사용.

4. 쓰 기

학생들이 습득한 언어지식을 바탕으로 글을 쓰는 행위는 그들의 언어능력을 증진시키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언어습득을 강화시켜준다. 하지만 기계적인 베끼기과정은 지양함이 좋다. 외국어 습득의 초기단계에서도 단순한 글이라도 자율적으로 쓰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미 듣고, 읽고, 토론했던 것을 재구성하여 글을 쓰도록 격려하고 자기나름의 입장에서 글을 전개도록 함이 창조적 교육을 위해서 바람직하다.

제 1 단계 : (ㄱ) 아는 단어를 정보기록용으로 베끼기.

제 2 단계 : (ㄱ) 정보전달을 위해 쉽고 짧은 귀절 베끼기.

(ㄴ) 한 두 단어를 기억해서 쓰기.

제 3 단계 : (ㄱ) 기억한 단어나 귀절 쓰기.

(ㄴ) 단순한 사실 정보전달을 위한 문장 쓰기.

제 4 단계 : (ㄱ) 단순한 사실에 감정을 가미해서 쓰기.

(ㄴ) 주어진 임무 재구성해서 쓰기.

제 5 단계 : (ㄱ) 주어진 글을 참고문헌 사용하여 재구성하기.

(ㄴ) 모르는 단어를 아는 단어로 설명하기.

제 6 단계 : (ㄱ) 사상을 서로 연결시킬 필요가 있는 쉬운 임무 수행하기.

(ㄴ) 참고문헌을 이용하여 다양하고 정확한 어휘로 글을 재구성하기.

제 7 단계 : (ㄱ) 일의 수행과정을 묘사하는 5~6개의 문장을 조작하여 재구성하기.

(ㄴ) 짧은 문장을 이용, 1~2단락의 짧은 서술문 작성.

제 8 단계 : (ㄱ) 읽은 글의 내용과 상황을 적절한 언어로 요약하기.

(ㄴ) 명백한 관점에서 의견, 이유, 개념을 표현하기.

제 9 단계 : (ㄱ) 독자와 목표에 적절한 문체와 길이로 필요한 글쓰기.

(ㄴ) 특정 활동에 대한 글의 적절한 문체 결정하기.

제 10 단계 : (ㄱ) 참고문헌을 이용, 일관성 있는 글 조작하기.

(ㄴ) 필요한 경우 참고문헌 없이 일정시간 내에 글을 창작하기.

대화의 기회를 넓혀주기 위해서 둘 또는 셋씩 그룹을 만들어 대화의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이 좋다. 이러한 경험은 학급전체에서 보다 많은 말하기 연습을 할 수 있게 해주고, 교사는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별학생들—특히 자신감이 없는 학생들—을 격려하고 주의를 기울여줄 수 있다. 또한 촌극 등은 그 언어를 보다 정교하게 사용하는 기회를

제공하므로 학생들의 언어학습을 강화하기 위해 이를 장려한다. 교실에서의 학습의 한계를 극복하고 외국어 학습을 국대화하기 위해 과도하지 않은 약간의 속체를 부과하는 것을 장려하면서, 속체는 창조적인 행위—편지쓰기 등—와 라디오나 TV듣기 등을 위주로 부과할 것을 추천한다.

평가의 목적이 학습그룹을 결정하고 시험에 대비하는데 국한되어서는 안된다. 평가의 세 가지 역할을 살펴보면, 첫째, 가르치고 배우는 목표의 달성을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둘째, 학생의 장단점을 알아내어 다음의 가르침과 배움에 연결시키는 것이다. 세째, 학생들이 성취정도를 파악하여 그들로 하여금 성취감을 갖게 하고 부모들이 그 진전을 알 수 있게 하는데 있다. 평가에는 모든 언어기술이 반드시 평가되어야 한다. 포괄적이고 집중적인 듣기와 읽기의 기술, 반응하고 대화를 이끌어나가는 능력, 글쓰기 능력 등도 모두 평가되고, 교과과정상의 목표에 알맞는 평가가 있어야 하며 배운 내용을 반영하도록 해야한다. 하지만 점점 객관식 다지 선다형 평가가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번역에 의한 평가는 사실상 사라졌고, 너무 영어를 많이 사용하지 않고, 상상력과 활용을 고무하는 시험이어야 한다. 편안한 환경에서의 비공식적인 평가가 학생들을 고무시키며, 시간의 낭비도 적지만,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의 확립이 필수적이다.¹⁴⁾ 구두능력의 평가가 시간을 많이 소모하나 외국어 학습의 본질적인 목표를 반영하는 만큼 이를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 과학처럼 외국어는 실용적 과목이어서 상황에 따라 실용적인 기술을 어떻게 적용하는지의 평가가 필수적이다. 목표를 확실히 정의하고 특정한 기준에 맞추어 수행단계를 평가하기 위하여 규정된 목표에 따른 점수를 측정하는 시험이나 GCSE(General Certificate of Secondary Education) 등이 유용하다.

평가의 경우 문법상의 오류를 얼마나 점수에 반영할 것인지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지향하는 목표는 학생들이 말하거나 쓰는 내용이 메세지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전달하는가를 종점으로하여 학생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여 학생들에게 동기를 부여함이 바람직하다. 학생들의 잘못을 지적해 벌점을 주는 것보다 학생들의 성취도에 따라 상을 주는 평가가 더 바람직하다. 따라서 13세 이상의 학생의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학습능력을 평가하는데 사용하는 학습평가측정단위(APU: Assessment of Performance Unit)가 외국어 교사들에게는 유용하며, 성취도에 따라 상을 주는 평가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평가는 학생들로 하여금 성취감과 동기를 부여하며 교사들에게 유익한 교수방법을 암시해 준다. 학생들에게 지속적인 대화나 광범위한 발표나 글쓰기를 가능케하는 기회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화위주의 교육방법이 문법지식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문법을 단어에서처럼 문맥속에서 배울 수 있다는 점 또한 명심해야 한다.

14) *Foreign Languages in the School Curriculum: A Consultative Paper*, p. 3.

VI. 언어 선택과 교사현황

현재 대다수의 학생들은 제 1외국어로 프랑스어를 배우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프랑스어의 어떤 본질적인 이점이라기 보다는 전통과 교사들의 수급과 관련이 있다. 물론 프랑스어가 가지고 있는 영어와의 공통언어의 특징, 문화상의 공통점이 여타 언어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근접성을 제공한다. 국제어로서 프랑스어는 모든 유럽국제기구의 통용어로서 영어와 동등한 위치에 있으며, 영어와 프랑스어를 구사하는 것이 영어와 타 언어를 배합하는 것보다 “세계시민(a citizen of the world)”가 되는 지름길이라고 대부분 생각하고 있다.¹⁵⁾ 독일어, 스페인어, 때로는 이태리어와 러시아어가 제 2외국어로 분류되지만 이들 언어를 택하는 학생의 수는 소수이며, 16세 이후에도 그 수는 더욱 줄어든다. 외국어 학습의 교육적 가치가 관심의 대상이 되는 한, 어떤 언어를 학습하는가는 중요하지 않다. 그러나 국가적으로는 언어—특히 유럽의 무역 파트너들의 언어—에 대한 지식을 풍부하게 지닌 인재들이 필요하다. 비록 무역, 학문, 외교상 필요한 언어들이 나중에 습득된다 할지라도 학교에서 보다 더 넓은 다양한 교육이 필요하다. 따라서 프랑스어 외의 언어가 제 1외국어로 도입될 필요가 있다.

1. 영국의 외국어 학습현황¹⁶⁾

(1984~1985. 전체 학생수: 중등학교(11~18세 까지) : 3,877,068 1984년 1월 현재)

(1) England와 Wales의 경우

교육단계	국민학교	중 학 교	고등학교(16~18세)
언 어			
프랑스어	11~13세 : 90% 14~16세 : 33%		3%
독 일 어	11~13 : 10% 14~16 : 10%		1%
스페인어	11~13 : 5% 미만 14~16 : 2.5%		1%
이태리어	11~13 : 1% 미만 14~16 : 1% 미만		1%

(2) Scotland의 경우

(1983~1984). 전체 학생수: 중학교 ; 371,884, 고등학교 ; 18,484)

교육단계	국민학교	중 학 교	고등학교(16~18세)
------	------	-------	--------------

15) C.V. James, p. 14.

16) 이하의 통계는 *Teaching of Languages in the European Community: Statistics(Working Document-March 1989)*, Published for the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Task Force: Human Resources, Education, Training and Youth by the European Unit of EURYDICE를 참조하였음.

언 어		
프랑스어	198, 132	11, 510
독일어	32, 417	3, 252
스페인어	4, 320	945
이태리어	1, 467	458
풀투칼어		1

영국정부는 외국어 교사의 적절한 공급이 외국어 교육에 필수적이라 여기고 국가 교육과정의 완수에 필요한 자격있는 교사공급에 정책적 배려를 하고 있다. 영국정부의 외국어 교육강화계획에 따르면 현재 14세 학생의 경우 50%가 외국어 학습을 포기하고 있다. 1995년부터는 11~16세 까지의 모든 학생이 외국어를 최소한 하나 이상 학습케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약 1,750명의 교사가 추가로 소요된다고 정부는 추정하고 있으나 언어학습협의회와 주임교사연합회는 3,000명의 교사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추정한다.¹⁷⁾ 특히 최근에 외국어 교사의 수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으며, 자격을 갖춘 교사의 부족은 자질상의 문제를 야기하기 마련이다.¹⁸⁾ 따라서 교사교육이 특히 시급하며, 현재 많이 가르쳐지지 않는 언어의 교사양성에 주력하고, 口語를 학생들에게 가르치기 위해 외국어 조교를 예비선생에게 규칙적으로 접촉케 한다. LINGUA와 TEMPUS같은 기관의 자금 지원을 받아 가능한 한 현지 교육을 실시토록 한다. 또한 교사의 현지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언어 재교육과 교수 방법론 및 평가 기술의 혁신화를 도모한다. 이리하여 교실에서의 목표언어 사용을 권장하고, 구어 의사소통 실력 및 원서 사용을 강조한다.

2. 영국의 외국어 교사현황

(1) England와 Wales의 경우(1984)

교육단계	국민학교	중 학 교	고등학교(16~18—)
언 어			
프랑스어	2, 974(독일어, 스페인어, 혹은 러시아어 교육가능) 384(기타 외국어 교육가능)		
독일어	8, 401(오직 프랑스어만 교육가능) 2, 107(불어, 스페인어, 혹은 러시아어 교육가능) 56(기타 외국어 교육가능)		
스페인어	2, 313(오직 독일어만 교육가능) 923(불어, 독일어, 혹은 러시아어 교육가능) 47(기타 외국어 교육가능) 694(오직 스페인어만 교육가능)		

(주의 : 이 통계는 현재 외국어 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정규교사의 수. 단, 교사자격증은 있으나 현재 그 언어를 가르치지 않을 수도 있음.)

17) *Modern Foreign Languages for Ages 11 to 16*, p. 89.

18) R.J. Godfrey & E.W. Hawkins, "The Education of Teachers of Foreign Languages," in *Foreign Languages in Education*, p. 71.

(2) 북 아일랜드의 경우 (1985)

교육단계	국민학교	중 학 교	고등학교(16~18세)
언 어			
프랑스어		496*(691)**	
독 일 어		35 (151)	
스페인어		30 (98)	
이태리어		3 (12)	

(* : 현재 이 언어를 주과목으로 가르치고 있는 교사수. ** : 이 외국어교사자격증을 가진 교사수)

(3) Scotland의 경우(1983~1984)

교육단계	국민학교	중 학 교	고등학교(16~18세)
언 어			
프랑스어		1,751*(3,397)**	
독 일 어		332 (667)	
스페인어		60 (125)	

(^ . 현재 이 언어를 주과목으로 가르치고 있는 교사수 ^*: 이 외국어교사자격증을 가진 교사수)

영어 및 문화의 진수를 학생들에게 접촉시키는데 외국어 교육조교(FLA: Foreign Language Assistants)의 활용이 경제적이며 매우 효과적이다. 이는 첫째, 젊은 모국어 사용자와 학생이 직접 외국어로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고, 교육과 평가에서 구어를 실제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둘째, 교실에서 교사를 보조할 수 있고, 소그룹의 학생과 교실 밖에서 언어교육을 가능케 해준다. 세째, 외국어 교육조교의 수업 참여는 교실에 그 문화를 소개하며 유럽시민 의식 및 유대의식을 강화시켜준다. 네째, 국제 간의 이해 및 교류를 증진시켜준다. 무엇보다도 외국어 교육조교는 교실에서 목표언어 사용이 필수적이고 기본적임을 전제로 힘을 향상 학생과 교사에게 기억시켜준다. 따라서 외국어 교육 조교 제도의 강화가 바람직하고 절실히 요구된다.¹⁹⁾

3. 외국어 교육助教 교환 현황(1983~1984)

(1) England와 Wales의 경우

나 라	영국체류 외국인 助教數	해외체류 영국인 助教數
벨기예 · 프랑스어권	8	7
네델란드어권	—	3
덴마크	—	1
독 일	564	484
스페인	162	175
프 랑 스	1,609	1,567
이 태 리	21	48
네델란드	—	2

19) *Modern Foreign Languages for Ages 11 to 16*, p. 91.

20) *Modern Foreign Languages for Ages 11 to 16*, pp. 83-84.

(2) Scotland의 경우(1984~1985)

나 라	스코틀랜드체류 외국인 助教數	해외체류 스코틀랜드인 助教數
벨기예 : 프랑스어권	2	
독일	84	자료 없음
스페인	16	
프랑스	195	
이태리	7	

현재 취급하지 않는 언어(특히 독일어와 스페인어)에 훌륭한 자질을 갖춘 교사가 있으므로 이러한 방향으로의 교육의 가능성은 진단해볼 수 있다. 교육프로그램의 변경이 짐작적인 언어기술을 가진 교사의 개발을 유도할 수 있음을 유념하고, 가능한 교사가 있을 경우 제1외국어를 2개로 설정할 수도 있다.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대개 제1외국어 성적을 토대로 하여 제한된 학생들에게만 제2,3외국어를 배울 기회를 제공한다. 하지만 제2외국어에서 요구하는 수준도 제1외국어의 경우와 유사하므로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의 수업에 의해서 제2외국어에서 일정한 표준에 도달하기가 쉽지 않음을 유념해야 한다. 따라서 제2외국어의 경우 보충수업을 고려해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제2외국어에 할당된 4시간에 40주동안 주당 1시간씩 추가하면 2년동안 80시간의 추가수업을 용인하는 셈이 된다. 외국어의 다양화를 위해서 가능한 많은 학교에서 제2외국어에 대한 배려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영국정부는 강조하고 있다.

소수인종을 위한 언어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영국은 이에 대해 배려를 하고 있다. Urdu, Punjabi 등 사용하는 인도출신과 Welsh나 Gaeilge와 같은 언어를 토착어로 하는 소수인종을 위해서 이 언어들을 중등학교의 교과과정에 포함시켜 이들 언어를 유지시키도록 배려하고 있다. 또한 영어 외의 언어를 집동에서 사용하는 2개국어 사용자들에 대해서도 필요하며, 이들의 언어도 정부의 언어 다변화정책에 부합하므로 이를 계발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어야 하며, 가능하면 이를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²⁰⁾고 강조하고 있다.

VII. 맷 음 말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급변하는 정세와 경쟁이 심화되는 세계에서 무역국가로서의 영국은 외국어 숙달이 매우 중요하다고 여겨왔으며, 단일 유럽시장의 출현은 그러한 변화하는 환경의 한가지이다. 사실 유럽통합이 외국어 학습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하는 점은 아직 결론지을 수 없다. 그러나 학생들이 외국어에 숙달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다 나은 기회를 부여하고 미래에 대한 도전능력을 높여준다는 관점에서 그리고 유럽공동체의 이질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영국은 다문화적 관점에서 유럽차원의 교육으로 외국어교육을 시행하고 있

다. 그러나 아직도 영국의 경우 외국어 습득이 의형적 보상 또는 혜택의 면에서 부족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학생들의 외국어 선택과정에 대해 학교나 정부가 특정언어를 옹호하지 않고 직업, 또는 개인의 선호에 따라 선택함을 원칙으로하나 실제의 경우 정부는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들 사이에 할당의 필요성을 느끼고 인력수급이나 수요를 예측하고 문화적 요인보다 경제적 가치 등을 고려할 것을 주장한다. 왜냐하면 프랑스어 학습에 학생들의 선호가 편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과거의 외국어 선정기준이 사회, 도덕, 지식상의 가치였다면, 오늘날은 개인이나 나라의 이해관계상, 즉 Matthew Arnold의 학습에 대해 보상을 요구하는 “교육의 상업이론(commercial theory of education)”에 의해 선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영국정부는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능력, 나이, 욕구에 어울리는 목표를 설정하고 창의적인 교수법과 시청각 교재 등을 통한 학습기회 등을 개발하여 시대와 학생들의 요구에 부응하려 노력하고 있다. 이제까지 살펴본 바를 요약해 보면.

(ㄱ) 국민학교에서 프랑스어가 가르쳐지는 경우가 가끔 있으나 대개는 11세, 중학교 1학년때부터 외국어교육이 규정에 따라 시작된다.

(ㄴ) 중학교에서는 두개의 외국어가 가르쳐지는데 대체로 제 1외국어는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이다. 수업시간은 주당 2 1/2~3시간 정도이다.

(ㄷ) 고등학교의 경우 외국어를 세개정도 가르친다.

(ㄹ) 중학교 외국어 교사는 대학 또는 고등교육기관에서 3~4년동안 교육과 실습을 받은 외국어 교사 자격증 소지자들이다.

(ㅁ) 모든교사에게는 현직교육, 교사교환 프로그램 등의 기회가 주어져 있어 선택이 가능하다.

(ㅂ) 교육현장에서 교사는 외국어를 사용하여 학생들의 응용력을 향상시키고 번역 등의 수업방식은 지양하고 있다.

(ㅅ) 가능한한 열린 태도를 요구하는 평가를 장려하고, 학생의 성취감을 증진시키도록 배려하고 있다.

References

Department of Education and Science and the Welsh Office. *Foreign Languages in the School Curriculum: A Draft Statement of Policy by the Secretaries of State for Education and Wales*. London. 1986.

_____. *Modern Foreign Languages for Ages 11 to 16: Proposals of the Secretary of State for Education and Science and the Secretary of State for Wales*. London. 1990.

- HMSO. *Modern Foreign Languages to 16: Curriculum Matters 8.* London. 1987.
- Meara, Paul. Ed. *British Studies in Applied Linguistics 1: "Beyond Words."* Papers from the Annual Meeting of British Association for Applied Linguistics. Univ. of Exeter. 1988.
- Perren, P.E. Ed. *Foreign Language in Education: NCLE Papers and Reports 1.* London: Centre for Information on Language Teaching and Research. 1979.
- Sloman, A.E. *The Crisis in Modern Languages in Secondary and Higher Education.* London: Society for French Studies. 1977.
- Strength through Wisdom: A Critique of US Capability.* A Report to the President from the President's Commission on Foreign Language and International Studies. US Dept. of Health, Education and Welfare/Office of Education. Nov. 1979.
- The Teaching of Languages in the European Community: Statistics.* Published for the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Task Force: Human Resources, Education, Training and Youth by the European Unit of EURYDICE. Brussels. March 1989.

Policies of Foreign Language Education in the European Community

—Focusing on the cases of France, Germany, and the United Kingdom—

The aim of this group study is to give a picture of the situation regarding the teaching and learning of the modern foreign languages in Germany, France, and the United Kingdom as member countries of the European Community. Although educational systems in the Community countries vary considerably and this variety is the result of historic and cultural factors, educational policy makers in the European Community have long been aware of the importance of foreign language teaching as well as the value of information concerning innovations and changes in other Member countries. The Community countries agreed to promote close cooperation in the field of foreign language education, thereby achieving cultural "harmony" among themselves. They even agreed to set up an information network, known as EURYDICE, in order to increase and improve the circulation of information in the area of education policy. On the whole, the three countries strongly supported the study of foreign languages on the premises as follows: 1) the experience of learning a foreign language makes its unique contribution to allowing students to explore the life-style and culture of other lands; 2) a foreign language makes an important contribution to learning generally; 3) learning a foreign language fosters sympathetic but not uncritical attitudes toward the people of the foreign country, helping students to appreciate their culture; 4) effective learning language provides many opportunities for students to develop their skills of communication.